

광주·대구 2038 아시안게임 유치 전략 수립

광주전남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공동 연구 착수 내년 4월까지...타당성 확보 등 구체적 로드맵 제시

광주와 대구가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의 국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체결한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협력해 진행한다. 연구는 공동유치 여건 분석, 기본계획 및 유치

전략 수립 등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며, 대회 콘셉트(주제) 발굴, 양 도시 경기장 현황 조사 및 종목별 경기장 배분, 재정계획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도 포함된다. 광주와 대구시는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전략 등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종합스포츠대회로 국내에서는 서울(1986년), 부산(2002년), 인천(2014년)에서 열렸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연구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준비의 소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8 아시안게임이 광주·대구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국제경기대회의 경험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은 9월 10~25일 중국 항저우에서, 20회 대회는 2026년 9월 19~10월 4일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다. 2030년 개최지는 카타르 도하, 2034년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다. 2038년 아시안게임의 유치 일정은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한 국내후보도시 확정(2022년), 문체부·기재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심의(2023년), 2024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유치신청서 제출, 현지실사, 개최도시 최종 확정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시는 "6일부터 11월24일까지 2021년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6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주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발생 이자 6개월분(2021년 7~12월 발생 이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하고, 기간내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청 소년과(062-613-27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1만5839명에 대해 10억 5000만원의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올해 1학기에는 1186명에게 6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1학기에 지원 받은 대상자도 서류를 갖춰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결과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에너지 절약 사업' 전남도,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일반시설) 사업'에 전국 최다인 6개 사업이 선정, 국비 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산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거쳐 전국 53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 4개 시·군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국비 9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3억7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비, 지역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한다. 시·군별로 광양은 3개 사업, 나주·강진·장성이 각 1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은 광양의 경우 ▲음식물 자원화시설 송풍기 교체 2억2000만원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 4억원 ▲의회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 1억5000만원 등이다. 나주는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8억원, 강진은 가로등 양방향 조명 제어시스템 설치 5억7000만원, 장성은 하수처리장 전동기 효율 향상 3억5000만원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전남도 11곳 선정

전남도가 올해 농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50개 시·군 중 11곳이 선정됐다. 2년 연속 전국 최다의 성과다. 선정 시·군은 장성, 영광, 신안, 곡성, 해남, 화순, 무안, 영암, 나주, 강진, 순천이다. 특히 장성이 전국 1위, 영광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촌정원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발작물 주산지 임대 농기계 지원과 영농철 공휴일 휴무 없는 임대사업소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책도 농업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각 2억원씩 총 2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해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전국 146개 시·군, 469개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확보, 발농업 기계화율, 수요자 만족도 등으로 전국 상위 50개 시·군을 선정한다. 전남도는 여수 등 21개 시·군에 67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트랙터와 콤팩트 등 총 1만27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순천, 강진, 무안 등 3개소에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순천, 광양, 무안, 완도, 신안에 각 1개소씩 5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SOC 국가계획에 14조 반영 사상 최다 금호타이어,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 우려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이룬 SOC 성과와 2021년 국가계획에 반영된 12조원 규모의 사업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전남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대회'를 5일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했다. 보고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과 구복규·김성일 부의장,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 권오봉 여수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공후식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전남의 도로·철도·공항 분야 과거, 현재, 미래와 정부 국가계획에 반영된 전남의 SOC사업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소개했다. 올해 정부에서는 도로, 철도 등 5년과 10년 단위의 SOC사업 국가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

는 총 17지구 12조8130억원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3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속원사업이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 10지구가 반영돼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고흥-완도, 고흥 봉래 2개 구간이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지구 구축을 앞당기게 됐다. 김 지사는 "정부 SOC 국가계획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돼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김익주 광주시의원 지적 사업자 선정 문제로 법정 소송중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원 김익주 의원은 5일 시정 질문에서 어등산 사업과 관련,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제공하면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면서 "광주시,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공공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압박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기존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 관산구에 소재한 금호타이어의 전남 함평 빛그린 산단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호타이어가 이전하게 되면 광주는 인구, 고용, 세수가 줄어든다"면서 "매년 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출퇴근 문제로 근로자가 떠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시장은 3~5년 내 이전, 토지 매입 비용, 광주-전남 상생 문제를 들어 대응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